

16세기 조선의 『論語』 懸吐 변화와 특징

-『論語大文口訣』과 經書字本 『論語諺解』의 대조를 중심으로-

박 철 민*

목 차

- I. 서론
- II. 조선시대 『논어』의 번역
- III. 『논어대문구결』과 경서자본 『논어언해』의 서지사항
- IV. 16세기 『논어』 현토의 변화와 특징
- V. 결론

부록. 『論語大文口訣』과 『論語諺解』의 본문 대조 예

국문초록 | 이 글은 경학사적 관점에서 16세기 초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論語大文口訣』과 16세기 후반 간행된 『論語諺解』의 한글토를 대조하여, 그 변화 양상과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한글토를 대조하였을 때, 『논어언해』의 한글토는 『논어대문구결』에 기초하되, 주격조사 추가, 세분화된 문장의 단일화, 앞뒤 문장과의 관계 및 朱子註 등을 고려한 교체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변화에는 ‘·’의 1단계 음과 소실과 같은 음운 현상도 연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논어대문구결』과 『논어언해』 한글토의 밀접한 관련성, 간행 추정 시기 등을 보아 『논어대문구결』은 유승조가 작업한 『논어』의 현토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핵심어 | 유학, 논어, 유승조, 언해, 經學史.

* 朴哲珉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왕실문헌연구실 연구원 pcm92@aks.ac.kr
투고일: 2025. 05. 14. 심사완료일: 2025. 06. 26. 게재확정일: 2025. 06. 27.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5.48..45>

I . 서론

經典은 聖人の 말과 행실을 수록한 문헌으로, 경전이 존재한 각 사회마다 사회적 질서의 기준으로 받들어졌다. 이 중 儒學의 경전은 한국에서 늦어도 삼국시대부터 읽혀졌다.¹⁾ 그러나 성인의 말을 명확히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유학이 출현한 중국에서도 다양한 주석서가 나타났으며, 한국에서는 본문을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신라에서는 薛聰(655~?)이 九經을 方言으로 풀이하는 성과를 내었고, 신라의 讀書三品科, 고려의 科舉制 등 학업 수준을 기반으로 관원을 선발하는 방식이 정착되면서 유학 경전의 학습은 더욱 중시되었다.²⁾

기록이 부족하여 고려시대 이전 학습의 형태는 어떠하였는지 명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현전 문헌을 보아 구절 끝에 吏讀나 口訣을 기입하는 懸吐방식(이하 현토)이 활용되었으리라 여겨진다. 현토에 사용된 문자는 본래 한자의 本字 내지 略體字였으나, 한글 창제 이후부터 조선시대 관판본에는

1) 예를 들어 『三國史記』 「新羅本紀」 제1 신라 거서간 19년(B.C.19)의 기사에서 마한왕이 龕逝하자, 어떤 이가 왕에게 마한의 혼란을 톤타 정벌하고 건의하였을 때, 신라 초대왕인 赫居世는 仁이 아니라며(上曰, 幸人之災, 不仁也) 거절하였다. 궁자의 핵심사상인 仁을 혁거세가 언급하였다는 점은 기록상 혁거세가 『논어』를 접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유학 경전인 『孟子』를 읽은 혼적도 신라 나물이사금 2년(357) 사신을 보내 鰥寡孤獨을 위로하였다(發使撫鰥寡孤獨)는 구절로 확인된다. 이외에도 평양에서는 기원전 1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논어 竹簡이 발굴되기도 하였다. 실물 논어 죽간의 발굴이나 기록을 보아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유학의 경전을 접하였다고 할 수 있다. 평양 발굴 논어 죽간에 대해서는 李成市·尹龍九·金慶浩, 「平壤 貞柏洞364號墳출토 竹簡『論語』에 대하여」, 『목간과문자』 4, 2009 참조.

2) 신라의 독서삼품과에는 『論語』, 『春秋左氏傳』, 『禮記』, 『孝經』 등의 유학경전과 『文選』이 과목으로 채택되었으며, 고려시대 國學에서는 『周易』, 『尚書』, 『周禮』, 『禮記』, 『毛詩』, 『春秋三傳』, 『孝經』, 『論語』 등의 유학경전과 『國語』, 『說文』, 『字林』, 『三倉』, 『爾雅』를 학습한 기록이 확인된다. 『三國史記』 「新羅本紀」 제10 신라 원성왕 4년(788) 기사: 『高麗史』 「志」 권28 選舉2 學校條 참조.

한글을 사용한 현토 방식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현토는 문장의 구조 안에서 해당 단어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수식어인지 등을 구분하게 해주는 요소로도 작용하며, 특정 문장이 후속되는 문장과 연결되는지, 역접이 되는지 등을 알려주는 표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³⁾

현재 유학의 경전에 사용된 현토는 선조대 編刊된 四書三經의 언해본에 기반한다. 사서삼경의 언해본 편간 이후 조선후기 과거시험에서 학습 및 채점의 기준서로서 작용하며, 절대적인 입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서삼경의 언해에 대한 연구나 현토에 대한 연구는 그간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다.⁴⁾ 그러나 사서삼경의 현토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사서언해에 사용된 현토가 이전 시대에는 어떠한 모습이었으며, 선조대에 어떠한 특징이 추가되었는지 살펴본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선조대의 사서언해 보다 이전 시대의 사서에 현토를 한 문헌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서에 속하는 『論語』, 『孟子』가 삼경에 속하는 『詩經』, 『書經』보다 절실하다고 보는 관점⁵⁾도 있는 만큼, 사서에 대한 연구도 삼경에 대한 연구

3) 이병혁, 「傳統 漢文 教育 -漢文 懸吐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6, 2000에서는 현토의 원인으로 관계어로 연결되어야 인식이 용이한 한국어의 첨가적 특성을 거론한 바 있다.

4) 사서언해에 대한 연구로 경학적 측면에서 유영옥, 「校正廳本 四書諺解의 經學的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을 들 수 있으며, 어학적 측면에서는 남경란, 『사서언해』의 국어학적 고찰, 『민족문화논총』 34, 2006; 여찬영, 「中庸諺解」의 번역언어학적 분석, 『언어과학연구』 38, 2006; 이영경, 「사서삼경(四書三經)의 언해 양상과 표기상의 특징」, 『우리말글』 57, 2013. 서지학적 측면에서는 육영정, 「17세기 간행 四書諺解에 대한 종합적 연구」, 『서지학연구』 32, 2005; 안현주, 「朝鮮時代 〈四書〉의 板本 研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신정엽, 「목판 改刊의 의미와 改刊本의 형태서지적 분석」, 『서지학연구』 99, 2024. 교육학적 측면에서 박종배, 「조선 전기의 유교 경서 구결과 그 교육사적 의의」, 『교육사학연구』 29-2, 2019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신상후, 「四書의 經文 및 註文 해석에서 懸吐 논란 사례에 관한 고찰」, 『한국고전연구』 30, 2015와 같이 경문과 주석의 해석과 관련된 논란 중 현토가 중심이 되었던 사례를 분석한 연구도 존재한다.

5) 『宣祖實錄』 9년(1576) 9월 9일: 上曰: 『詩』、『書』與『論』、『孟』, 如何? 對曰: 『論』、『孟』又

못지 않게 한국의 경학사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특히 『논어』에 대한 해석은 곧 유학의 성인인 孔子를 이해하는 것이므로, 여타의 문헌보다도 더 중요시 된다.⁶⁾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선조대 사서언해보다 시기상 앞선 유학 경전의 현토본은 『論語大文口訣』과 『孟子大文口訣』(이하 대문구결류로 총칭)이 존재한다. 해당 문헌은 희귀본으로 현전본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간행시기 및 편자를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이규필(2019)와 같이 율곡의 사서언해와 관판본 사서언해의 현토 분석은 이루어진 반면, 대문구결류와 사서언해의 현토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맹자대문구결』의 경우 완질이 전하지 않아 현토의 전모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문구결류 중 완질본으로 전하는 『논어대문구결』과 『논어언해』 중 가장 이른 시기 판본인 經書字本 『논어 언해』의 현토를 비교하고자 한다. 두 종의 문헌은 조선전기 官板本으로, 유학의 핵심 경전인 『논어』에 한글을 사용하여 현토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해당 문헌의 한글토를 대조하여 개별 문헌의 특성과 상호간 연계성을 파악한다면 한국의 經學史에서 유학경전에 대한 이해도가 어떻게 발달하였는지 살펴볼 사료로서 기능할 것이며, 현재 주류를 이루는 사서언해의 현토는 그 이전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성을 추가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Ⅱ. 조선시대 『논어』의 번역

조선시대 『논어』의 번역⁷⁾은 四書 번역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論

切於『詩』、『書』。

6) 이러한 관점은 이규필, 「栗谷四書諺解와 校正廳四書諺解 현토의 비교 연구 -주로 『論語 諺解』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61, 2019에서도 확인된다.

7) 본 연구에서는 한자 및 한글토와 같은 사용문자 간의 차이, 대문을 유지하며 토씨만

語』, 『孟子』, 『大學』, 『中庸』을 集註한 宋代 朱熹의 四書集註가 元代 과거시험 과목으로 채택⁸⁾된 뒤, 고려 말 신진사대부에 의해 유입·정착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은 초기부터 御覽 등의 사유로 구절을 분리하거나, 토를 다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조선전기 『論語』의 구결 및 언해 사업

시기	작업 사항	작업주체	출처
태조 7년(1398)	四書에 句節을 구분	河峯, 趙璞	太祖實錄 1398년 9월 17일 기사
미상	四書五經의 구결을 정함.	權近 (1352~1409)	慵齋叢話 卷1
세종 30년(1448)	諺文으로 四書 번역	金鉤	世宗實錄 1448년 3월 28일 기사
세조 11년(1465)	先儒의 四書五經 口訣과 鄭夢周의 詩經 口訣 수집	禮曹	世祖實錄 1465년 11월 12일 기사
세조 12년(1466)	四書五經과 春秋左傳의 구결을 정함	鄭麟趾, 申叔舟, 丘從直, 金禮蒙, 崔恒, 徐居正 等 *論語는 李石亨이 담당.	世祖實錄 1466년 2월 9일 기사 五洲衍文長箋散稿 太虛亭集 「經書小學口訣跋」
세조 14년(1468)	四書五經의 구결을 올리도록 명함.	世祖	世祖實錄 1468년 7월 28일 기사
15~16세기초	經書를 懸吐함	柳崇祖(1452~1512) 等	宣祖實錄 1574년 10월 25일; 眉巖集 「經筵日記」

단 현토문과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어 번역한 언해문 간의 차이점은 차치하고 번역이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논지를 전개하도록 한다.

- 8) 『元史』卷81 「選舉一」至仁宗皇慶二年十月，中書省臣奏：科舉事。… 考試程式：蒙古、色目人，第一場經問五絳，『大學』、『論語』、『孟子』、『中庸』內設問，用朱氏章句集註。其義理精明，文辭典雅者為中選。第二場策一道，以時務出題，限五百字以上。漢人、南人，第一場明經經疑二問，『大學』、『論語』、『孟子』、『中庸』內出題，並用朱氏章句集註。復以己意結之。限三百字以上。

			1574년 10월 25일 기사
선조 18년(1585)	四書를 諺解함	李珥	栗谷全書 권33 「年譜」上 1585년 6월 기사
선조 21년(1588)	四書三經의 音釋 교정과 諺解 작업을 마침	校正廳	宣祖實錄 1588년 10월 29일 기사. *1584년 下命함

표를 살펴보면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선조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경서의 해석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세종 말엽에는 한글이 창제되자 한글로 언해를 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세조대에는 先儒의 해석을 수집하고, 당대의 신하들이 작업을 분담하여 구결을 정하는 등의 작업이 확인된다.(표 1) 16세기 초에는 柳崇祖(1452~1512)⁹⁾ 등에 의해 경서의 구결이 매겨졌는데, 해당 구결은 『眉巖集』 「經筵日記」 선조 7년(1574) 10월 25일조 기사를 보아 유승조의 구결은 선조대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여전히 고칠 부분이 존재하였다.¹⁰⁾

유희준이 경연에서 유승조의 구결을 언급한 지 2년이 지난 선조 9년(1576)에는 사서삼경의 현토와 주석 작업의 적임자를 찾는 모습이 확인되며¹¹⁾, 8년이 지난 1584년에는 四書三經의 언해를 위한 校正廳이 설치되었고, 4년이 지난 선조 21년(1588) 10월에 사업이 종결¹²⁾되었다. 이때 찬정된 사서삼

9) 본관은 全州, 字는 宗孝, 號는 眞一齋. 柳之盛의 아들로 성종 3년(1472) 司馬試 入格, 성종 20년(1489) 문과에 급제하여 司諫院正言, 工曹參議, 成均館大司成 등을 지냈다. 성리학에 밝았으며, 七書諺解를 편찬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칠서언해를 편찬하였다는 사실은 유승조의 문집인 『眞一齋先生遺集』에 수록된 贈謚教旨 관련 禮曹回啓에서도 확인된다.

10) 『眉巖先生集』 권18 「經筵日記」 선조 7년(1574) 10월 25일: 臣對曰: 柳崇祖等所定吐誠善, 然今講『尚書』, 亦往往有誤處, 未審當改否.
11) 『宣祖實錄』 선조 9년(1576) 4월 4일: 上於經席, 上命柳希春, 詳定四書三經吐釋. 希春對以力小任重, 經書, 請命他人, 又薦李珥, 上採用其言, 亦命李珥詳定經書吐釋.

경의 언해 원고는 현전하는 사서언해만이 해당된다. 현전하는 삼경의 언해는 인쇄가 되기 전 임진왜란으로 『詩經』의 언해 일부만 남고 모두 소실되었기에, 선조 36년(1603) 새로 번역하여 간행한 것이다.¹³⁾

Ⅲ. 『논어대문구결』과 경서자본 『논어언해』의 서지 사항

2장에서는 선조대 편간된 『論語諺解』 이전까지, 조선시대 『논어』의 구결 및 번역 작업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論語大文口訣』과 經書字本 『論語諺解』의 서지사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논어대문구결』을 살펴보자.

『논어대문구결』은 현재 고려대학교 화산문고에 소장된 것이 유일하다. 乙亥字로 인출되었으며, 매면마다 9行 17字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다. 邊欄은 四周雙邊이며, 반곽의 크기는 세로 22.0cm, 가로 15.1cm이다. 上下版口에는 大黑口가 확인된다. 어미는 上下內向花紋魚尾인데, 화문은 1葉부터 3葉까지 나타난다. 책의 전체 크기는 세로 29.8cm, 가로 19.2cm이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소장 『논어대문구결』의 모습이다.

12) 사서삼경의 언해 작업 차수에 대해서는 『宣祖實錄』 선조 21년(1588) 10월 29일 기사 참조.

13) 『宣祖實錄』 선조 36년(1603) 5월 13일 기사 참조.



[그림 1] 고려대학교 소장 『논어대문구결』과 디인된 인문14)

表題는 ‘論語大文口訣’이며, 전체 7卷 1冊이다. 본문은 별도의 卷次가 없으나, 「學而」부터 「爲政」까지, 「八佾」부터 「公治長」까지의 본문 앞뒤로 卷首題와 卷末題를 두는 등, 전체 7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구분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7권으로 판별하였다.(그림 1) 『논어대문구결』에서 7개 구획으로 구분한 편명은 永樂帝의 명으로 편찬된 性理大全 중 하나인 『論語集註大全』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논어대문구결』의 구획이 『논어집주대전』에 기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논어대문구결』의 각 권과 『논어집주대전』의 각 책마다 수록된 편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 본 연구에서 인용하는 『논어대문구결』의 이미지는 모두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표 2] 『논어대문구결』과 『논어집주대전』의 篇名 수록 대조

순서	『논어대문구결』 卷別 수록 편명	『논어집주대전』 冊別 수록 편명
1	「學而」, 「爲政」	「學而」, 「爲政」
2	「八佾」, 「異仁」, 「公治長」	「八佾」, 「異仁」, 「公治長」
3	「雍也」, 「述而」	「雍也」, 「述而」
4	「泰伯」, 「子罕」, 「鄉黨」	「泰伯」, 「子罕」, 「鄉黨」
5	「先進」, 「顏淵」, 「子路」	「先進」, 「顏淵」, 「子路」
6	「憲問」, 「衛靈公」, 「季氏」	「憲問」, 「衛靈公」, 「季氏」
7	「陽貨」, 「微子」, 「子張」, 「堯曰」	「陽貨」, 「微子」, 「子張」, 「堯曰」

『논어대문구결』 첫 번째 卷首題 하단에는 [睡默道人], [趙磾叔玉], [箕城後學]이, 마지막 卷末題面 하단에는 [劇中有此閑]이 담인되어 있어 해당 문헌이 睡默道人이란 인물과 조선 후기 문신인 趙磾(1625~1680)의 소장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수묵도인은 현재 누구인지 알 수 없다.¹⁵⁾



[그림 2] 『논어대문구결』에 담인된 인문

이러한 『논어대문구결』은 일찍이 안병희(1979)¹⁶⁾와 안현주(2007), 박종배(2019)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안병희(1979)에서는 『논어대문구결』을 16세기 중엽 이후 간본으로, 안현주(2007)은 16세기 초, 박종배(2019)에서는

15) 이상 인장과 관련해서는 구자훈, 「朝鮮朝의 藏書印·藏書家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262~263쪽을 참조하였음.

16) 안병희, 「中世語의 한글資料에 대한 綜合的인 考察」, 『규장각』 3, 1979.

표 1에서 보이는 세조 12년(1466) 무렵 간행본으로 보는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현주(2007)에 따라 16세기 초 간본으로 판정하기로 한다. 세조대 간행본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판식에서 보이는 花紋魚尾와 인출에 사용된 을해자가 마모되어 획이 어그러지거나 가는 부분이 확인되어 을해자가 주성되었을 시기보다 다소 후대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논어대문구결』에서 활자의 예시이다.

정상활자				
	學而 2a 1행 9번째 14번째	鄉黨 9a 3행 14번째	鄉黨 8a 2행 11번째	八佾 1a 3행 3번째
마모된활자				
	學而 1b 2행 3번째	學而 3b 2행 1번째	公治長 7b 7행 8번째	雍也 4b 8행 3번째

[그림 3] 『논어대문구결』의 마모된 활자 예¹⁷⁾

그림 3을 살펴보면 품의 상단에 위치하는 ‘五’ 가운데 획이 어그러진 모습이나 而의 획이 전반적으로 가늘어진 모습, 한 획이어야 할 也의 첫 번째 획이 모두 어긋난 모습을 볼 수 있다. 十 또한 연결되어야 하는 가로획이 어그러졌다.(그림 3) 이러한 현상은 모두 금속활자가 오랫동안 사용되어 마모된 모습에 해당한다. 을해자는 1455년에 주성된 것¹⁸⁾인데, 16세기 중반

17) 해당 문헌은 권차가 별도로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판심제에 나타나는 편명과 판심 하단에 나타나는 張次에 따라 권을 구분하고 장차를 기입하였다.

편간되었을 세조대의 구결본이 『논어대문구결』이라면 이처럼 마모된 활자가 쉽게 확인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논어대문구결』의 한글토에서 보이는 ‘-잇고’, ‘-잇가’, ‘-이다’와 같이 초성에 ‘ㅇ’(옛이응)이 사용된 토는 16세기 초반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¹⁹⁾ 활자의 상태, 한글토의 표기 특징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논어대문구결』의 간행 시기를 16세기 초로 판별하고 논지를 전개하도록 한다. 만약 해당 문헌이 16세기 초 편찬된 것이라면, 『논어대문구결』은 유승조가 혼토한 문헌일 가능성 있다.

『星湖僕說』 「經史門」에서는 『미암일기』를 거론하며 경서의 언해가 유승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확인된다.²⁰⁾ 실록의 기록에서는 사서의 언해가 세종대에 시작되었다고 하며, 『미암일기』에서도 유승조가 경서에 혼토를 잘해두었다는 문구만 확인될 뿐, 유승조로부터 경서언해가 시작되었다는 말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승조로부터 경서 언해가 시작되었다는 성호의 의견과 미암의 유승조에 대한 호평, 유희준이 경연에서 선조에게 유승조의 구결을 호평한 지 2년이 지난 시기부터 사서언해의 편찬 작업을 위한 적임자 모색을 감안하면, 선조대 경서언해가 편찬되기 이전, 유승조가 작업한 문헌이 선조대 이루어진 경전의 번역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으리라 여겨진다. 만약 필자의 논지대로 유승조의 경서 언해가 선조대 사서언해에 영향을 끼쳤다면, 『논어대문구결』의 혼토도 『논어언해』의 혼토와 상당 부분 일치할 것이다.

18) 『成宗實錄』 성종 5년(1474) 11월 22일: 上謂右副承旨金永堅曰: 今用何鑄字印書? 對曰: 甲寅、乙亥兩年所鑄字也。然印書莫善於庚午字而以瑢之所寫, 已毀之, 命姜希顏寫之而鑄成, 乙亥字是也。

19) 필자가 확인하였을 때, ‘-잇고’, ‘-잇가’는 『釋譜詳節』부터 『法華經(諺解)』의 개간본 까지, ‘-이다’는 16세기 초반에 편찬된 『翻譯小學』, 『二倫行實圖』까지 사용되었다. 후대의 번각본 중에서도 확인되긴 하나, 번각본은 원본을 충실히 반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여기서는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20) 『星湖僕說』 「經史門」: … 余考柳眉庵日記, 經書之有諺釋, 自柳參議始. ….

이외 안병희(1979)에서는 본문에 朱墨으로 기재된 구결을 교정이라 표현한 바 있다. 필자가 살펴본 바 해당 주목은 『논어언해』의 한글토와 일치하므로 교정으로 보기보다는 후대 소장자가 『논어언해』와 차이가 나는 부분을 표기해둔 것으로 보겠다. 이상 살펴본 『논어대문구결』의 서지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 『논어대문구결』의 서지사항

서명	간행처	간행시기	판식	소장처
論語大文 口訣	[校書館]	[16세기 초]	7卷 1冊 : 金屬活字本(乙亥字), 四周 雙邊, 半郭 22.0×15.1cm, 有界, 9行 17字, 上下大黑口, 上下內向花紋魚 尾 ; 크기 29.8×18.5cm	고려대학교 화산문고
주기 사항	表題: 論語大文口訣 印文: 睡默道人, 趙穉叔玉, 箕城後學, 劇中有此閑 별도의 권차는 없으나 구획별로 권수제 및 권말제가 나타남.			

다음으로 經書字本 『論語諺解』를 살펴보자. 『논어언해』는 조선 후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간행되었기에, 판본도 다양하다. 이 중 경서자본 『논어언해』는 여러 이본 중 가장 앞선 것이며, 유일한 조선 전기 판본이다. 해당 판본은 방점, ‘o’, ‘△’의 사용 등에서 다른 판본과 확연히 구분된다. 경서자본은 선조 21년(1588) 언해가 완료된 뒤부터 선조 23년(1590) 도산서원에 내사²¹⁾되기 이전까지, 그 사이에 인출이 완료되었다.

해당 판본은 17세기 번각되어 유통되었는데, 『承政院日記』에서 『論語諺解』 「堯曰」出納之吝, 謂之有司라는 대목을 논의하며 ‘出’자는 언해에서 去聲을 따라 발음을 ‘墜’로 하였다는 영조 1년(1725) 7월 18일 기사²²⁾를 보아,

21) 도산서원 소장본은 ‘萬曆十八年七月日, 內賜禮安陶山書院『論語諺解』一件. 左副承旨臣李(着名)’이라는 내용의 内賜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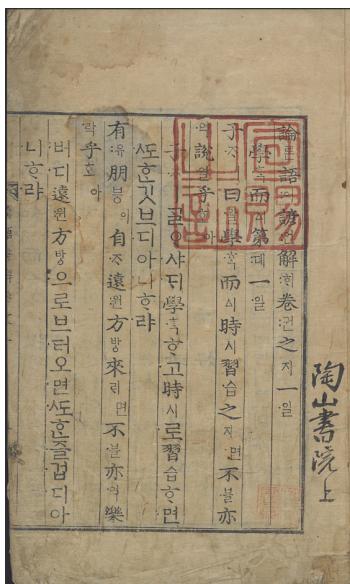
22) 『承政院日記』 영조 1년(1725) 7월 18일: 上讀『論語』第七卷「堯曰」篇, 至予小子履大文.

경서자본 계통의 판본은 18세기까지 조정에서 講을 행할 때 활용되었으리라 여겨진다.²³⁾ 경서자본은 현재 도산서원에 완질이 전하고 있으며, 낙질본으로 권2와 4, 2책이 고려대학교 만송문고에, 권1~3 3책이 임고서원에, 권3 1책 영본이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趙靖 宗家에 각각 소장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산서원본을 기반으로 원문을 구축²⁴⁾한 뒤 『논어대문구결』과 대조 하였으므로, 도산서원본의 서지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경서자본 『논어언해』는 經書字로 인출되었으며, 매면마다 10行 19字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다. 변란은 사주쌍변, 반곽의 크기는 세로 24.5cm, 가로 17.2cm이다. 어미는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이며, 책의 전체 크기는 세로 35.5cm, 가로 22.5cm이다. 도산서원본에는 권수제면에 ‘陶山書院上’이라는 묵서가, 하단에는 [陶山書院]이라는 인문이 담인되어 있다. 다음은 도산서원 소장 경서자본 『논어언해』의 모습이다.

上曰，此上當有湯字，可乎？參贊官李挺周曰，宜有湯字矣。申思喆曰，牡字之音，非牧也。朴師聖曰，似是誤讀也。上曰，誤讀爲牧也。師聖曰，屏字誤讀，爲辱字矣。挺周曰，出納之出字，諺解從去聲，謂之墜字，方言漢音，有異，此非關係，而既謂之墜，故敢達。上曰，既謂之去聲，則當讀爲墜字矣。

- 23) 出納의 出을 거성에 따라 墜의 발음으로 읽은 판본은 관판 『논어언해』의 판본 중 경서자본이 유일하다. 율곡의 『論語栗谷先生諺解』도 추로 읽은 바 있으나, 해당 판본은 영조 25년(1749)에 간행되었으므로, 『승정원일기』이 작성되던 1725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 24) 도산서원 소장본 권3은 일부 결락이 있다. 해당 내용은 임고서원 소장의 권3으로 보완할 수 있다.

[그림 4] 도산서원 소장 經書字本『論語諺解』²⁵⁾

이상 살펴본 경서자본『논어언해』의 서지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경서자본『논어언해』의 서지사항

서명	간행처	간행시기	판식	소장처
論語諺解	[校書館]	[선조 21-23년 (1588-1590)]	4卷 4冊 : 金屬活字本(經書字), 四周雙邊, 半郭 24.5×17.2cm, 有界, 10行 19字,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크기 35.5×22.5cm	도산서원, 임고 서원, 고려대학 교, 조정종가, 세종대왕기념 사업회

25)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도산서원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인용한 것이다.

주기 사항	<p>*도산서원본 인문: 陶山書院</p> <p>*도산서원과 임고서원 소장본은 내사본임.</p> <p>*도산서원본은 완질이며, 임고서원은 권1-3, 고려대는 권2, 4, 조정종가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권3 1책만 소장되어 있음.</p>
----------	--

IV. 16세기 『논어』 혼토의 변화와 특징

3장에서는 본 연구 대상의 서지사항과 특징 등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논어대문구결』과 경서자본 『논어언해』(이하 『논어언해』)는 인출 시기만 다를 뿐, 관에서 간행한 문헌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출에 사용된 읊해자나 경서자는 중앙에서만 가지고 있던 활자이기 때문이다. 즉, 본문 내에 기재된 한글토는 중앙에서 인정한 논어의 혼토에 해당되므로 두 문헌의 한글토를 대조한다면, 16세기 조선에서 『논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대조를 통해 선조대 편간된 『논어언해』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4장에서는 『논어대문구결』과 『논어언해』의 혼토를 대조하여 변화 양상 및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논어』 본문의 구절을 일정한 기준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필자가 살펴본 바, 『논어대문구결』은 章만 구분되었을 뿐, 구절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다. 반면, 『논어언해』는 언해문과 한자음이 존재하며, 각 구절마다 언해문이 존재하므로, 구절이 구분된다. 『논어언해』의 구절은 『논어집주대전』과도 일치하며, 근원적으로 주자의 『論語集註』에 기반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어언해』에서 구분한 구절을 기준삼아 『논어대문구결』의 본문을 나눠 대조하고, 혼토의 전체 건수²⁶⁾를 파악하였

26) 한글토의 수량 계산은 음절이 아닌 건에 기준하였다. 즉, '-흐니라'나 '-이라', '-을' 등을 모두 1건으로 취급한 것이다.

다. 그 결과 499章으로 구성된 『논어』의 본문은 861개의 구절로 나눌 수 있다. 『논어대문구결』과 『논어언해』에서 혼토의 변화가 존재하는 구절은 전체 861개 중 644개(74.80%)로 16세기 초 『논어대문구결』의 한글토가 16세기 후반 『논어언해』에 이르러 전반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세히 살펴보면 『논어언해』의 한글토는 기본적으로 『논어대문구결』의 한글토를 골자로 두되, 일부 토만 수정 내지 가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논어대문구결』과 『논어언해』의 한글토 대조 예시이다.

[표 5] 『논어대문구결』과 『논어언해』의 대조 예²⁷⁾

논어대문구결	논어언해	편명	비고
子曰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 아	子 曰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 아	學而	주격조사 추가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 아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 아	學而	동일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아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 아	學而	동일
孟懿子 問孝흔대 子曰無違 니라	孟懿子 問孝흔대 子 曰無 違니라	爲政	주격조사 추가
樊遲御 러니 子 告之曰 孟 孫이 問孝於我 어늘 我 對 曰 無違라 호라	樊遲 御 러니 子 告之曰 孟孫이 問孝於我 어늘 我 對 曰 無違라 호라	爲政	주격조사 추가
樊遲曰何謂也 <u>잇고</u> 子曰 生 事之以禮 허며 死葬之以禮 허 며 祭之以禮니라	樊遲 曰何謂也 <u>잇고</u> 子 曰 生事之以禮 허며 死葬之以禮 허 며 祭之以禮니라	爲政	주격조사 추가 'o'-'>'o'
孟武伯이 問孝흔대 子曰父母 는 唯其疾之憂 시니라	孟武伯이 問孝흔대 子 曰父 母는 唯其疾之憂 시니라	爲政	주격조사 추가

27) 『논어대문구결』에 있는 토가 『논어언해』에서 수정된 것은 『논어대문구결』 본문에 굵게 표기하고, 『논어언해』에서 추가된 토는 『논어언해』 본문에 굵게 표기하였다.
이하 동일.

孔子 謂季氏 <u>호사</u> 八佾로 舞於庭 <u>흔니</u> 是可忍也 온 勤 不可忍也 리오	孔子 謂季氏 <u>호사</u> 八佾로 舞於庭 <u>흔니</u> 是可忍也 온 勤 不可忍也 리오	八佾	동일
三家者 以雍徹 <u>흔대</u> 子曰相 維辟公 <u>이어늘</u> 天子穆穆을 奚 取於三家之堂고	三家者 以雍徹이러니 <u>자</u> 曰相維辟公이어늘 天子穆穆 을 奚取於三家之堂고	八佾	주격조사 추 가 흔 대->이 러 니 ‘..’->‘—’
或曰雍也는 仁而不佞 <u>이로소</u> <u>이다</u>	或 <u>이</u> 曰雍也는 仁而不佞이로 다	公 治 長	주격조사 추 가 '소이' 삭제
子曰焉用佞이리오 禦人以口 給 <u>흔다가</u> 屢憎於人 <u>흔느니</u> 不 知其仁이어니와 焉用佞이리 오	<u>자</u> 曰焉用佞이리오 禦人以 口給 <u>흔야</u> 屢憎於人 <u>흔느니</u> 不 知其仁이어니와 焉用佞이리 오	公 治 長	주격조사 추 가 흔 다가-> <u>흔 야</u>
子 使漆雕開로 仕 <u>흔신대</u> 對 曰 吾斯之未能信이로이다 <u>흔</u> <u>대</u> 子 說 <u>흔시다</u>	子 使漆雕開로 仕 <u>흔신대</u> 對 曰 吾斯之未能信이로이다 <u>자</u> 說 <u>흔시다</u>	公 治 長	‘흔대’ 삭제
季文子 三思而後에 行 <u>흔더</u> 니 子 聞之 <u>흔시고</u> 曰再 斯可矣 <u>니라</u>	季文子 三思而後에 行 <u>흔더</u> 니 子 聞之 <u>흔시고</u> 曰再 斯可矣 <u>니라</u>	公 治 長	서술격조사 에 ‘ ’ 추가
子曰恭而無禮則勞 <u>흔고</u> 慎而 無禮則慧 <u>흔고</u> 勇而無禮則亂 <u>흔고</u> 直而無禮則絞 <u>리라</u>	<u>자</u> 曰恭而無禮則勞 <u>흔고</u> 慎 而無禮則慧 <u>흔고</u> 勇而無禮則 亂 <u>흔고</u> 直而無禮則絞 <u>니라</u>	泰 伯 第八	주격조사 추 가 '- 리라'-> ' 니라'

표 5를 살펴보면 대체적인 한글토는『논어대문구결』과『논어언해』가 동일하다. 다만,『논어언해』에서 주격조사가 추가되거나, 초성에 사용된 ‘ㅎ’이 ‘ㅇ’으로 변화하거나, 서술격조사에 ‘|’를 추가하거나, 원래 한글토가 있던 자리에 다른 한글토로 수정을 하는 등의 현상이 확인되는 정도이다. 이러한 점을 보아 선조대 편간된『논어언해』는 기존에 있던『논어대문구결』 등에 기초하되, 일부 한글토를 수정하는 수준에서 편찬 작업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논어대문구결』에서 『논어언해』로 왔을 때, 변화가 있는 644개의 구절 중 한글토의 수량이 증가한 구절은 431개(66.93%), 감소한 구절은 12개(1.86%), 수량의 변화가 없는 구절은 201개(31.21%)로, 변화한 한글토 대부분은 수량이 증가한 것에 해당한다.(표 5) 한글토가 증가한 구절 431개의 증가 원인을 분석하면, 순수하게 주격조사 ‘이/丨’에 의해 증가가 되거나, 보조사 ‘은/은’, ‘는/는’ 등의 조사와 주격조사가 함께 증가 원인이 되거나, 주격조사를 제외한 다른 조사가 증가 원인이 되는 3가지 경우의 수가 확인된다. 이 중 순수하게 주격조사에 의해 한글토가 증가된 구절이 416개, 주격조사와 다른 조사가 함께 증가 원인이 된 구절이 6개로, 한글토의 수량이 증가한 431개의 구절 중 422개(97.91%)가 주격조사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증가한 구절에 해당한다. 다음은 한글토가 증가한 구절의 예이다.

[표 6] 『논어대문구결』보다 『논어언해』에서 한글토가 증가한 예

논어대문구결	논어언해	편명	비고
子曰事君盡禮를 人以爲諂也 丨라 ھ느다	子丨 曰事君盡禮를 人이 以爲 諂也 丨라 ھ느다	八佾	주격조사 증가 원인 경우
子曰 關雎는 樂而不淫하고 哀而不傷 ھ니라	子丨 曰 關雎는 樂而不淫하고 哀而不傷이니라	八佾	
子曰管仲之器 丨 小哉라	子丨 曰管仲之器 丨 小哉라	八佾	
或曰管仲은 儉乎 丨 잇가 曰管氏 丨 有三歸하고 官事를 不攝 ھ니 焉得儉이리오	或이 曰管仲은 儉乎 丨 잇가 曰 管氏 丨 有三歸하고 官事를 不 攝 ھ니 焉得儉이리오	八佾	
崔子 丨 紲齊君이어늘 陳文子 丨 有馬十乘이러니 舍而違之 ھ고 至於他邦 則曰猶吾大夫 崔子也 丨 라 ھ고 違之 ھ고 之一邦 則又曰猶吾大夫 崔子也 丨 라 ھ고 違之 ھ니 何如 ھ니	崔子 丨 紲齊君이어늘 陳文子 丨 有馬十乘이러니 舍而違之 ھ고 至於他邦 ھ야 則曰猶吾 大夫崔子也 丨 라 ھ고 違之 ھ 며 之邦 ھ야 則又曰猶吾大 夫崔子也 丨 라 ھ고 違之 ھ니	公治長	주격조사와 다른 현토와 함께 증가 원 인된 경우

있고 子曰清矣나라 曰仁矣乎 丨잇가 曰未知케라 焉得仁이리오	何如 乎 네 있고 子丨 曰清矣 丨 나라 曰仁矣乎 丨잇가 曰未知 케라 焉得仁이리오		
子曰文莫吾猶人也아 躬行君子 子則吾未之有得호라	子丨 曰文莫吾猶人也아 躬行 君子노 則吾 丨未之有得호라	述而	
子曰若聖與仁則吾豈敢이리오 抑爲之不厭호며 誘人不倦 則可謂云爾已矣나라 公西華 丨 曰正唯弟子의 不能學也 丨 로소이다	子丨 曰若聖與仁은 則吾豈敢 이리오 抑爲之不厭호며 誘人 不倦은 則可謂云爾已矣나라 公西華 丨 曰正唯弟子 丨 不能 學也 丨 로소이다	述而	
子丨 在陳曰歸與歸與 丨뎌 吾 黨之小子 丨 狂簡호야 斐然成 章이오 不知所以裁之나라	子丨 在陳호샤 曰歸與歸與 丨 뎌 吾黨之小子 丨 狂簡호야 斐 然成章이오 不知所以裁之로 다	公治長	주격조사 외 다른 현토가 증가 원인된 경우
朝與下大夫言에 侃侃如也호 시며 與上大夫言에 閭閻如也 丨 러시다	朝에 與下大夫言에 侃侃如也 호시며 與上大夫言에 閭閻如 也 丨 러시다	鄉黨	
趨進翼如也 丨 러시다	趨進에 翼如也 丨 러시다	鄉黨	
攝齊升堂호실식 鞠躬如也호 샤屏氣似不息者 丨 러시다	攝齊升堂호실식 鞠躬如也호 시며 屏氣호샤 似不息者 丨 러 시다	鄉黨	

표를 살펴보면 『논어대문구결』에서는 ‘子曰’이나 ‘或曰’ 등을 그대로 두었으나, 『논어언해』에서는 발화의 주체에 주격조사를 부기하여 ‘子丨 曰’, ‘或이 丨 曰’과 같이 표기하였다. 이는 문장의 주어 성분을 더 도드라지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격조사 외 다른 현토가 함께 증가 원인이 된 경우는 「公治長」 편에서 子張이 공자에게 陳文子의 사람됨을 묻는 대목 중 진문자가 천하를 돌아다니는 구절에서 볼 수 있다. 해당 구절에서 ‘至於他邦則曰猶吾大夫崔子也’와 ‘之一邦則又曰猶吾大夫崔子也’는 『논어대문구결』의 경우 별도의 현토를 하지 않았지만, 『논어언해』는 ‘則’자 앞에 ‘호야’를 부기하였다.

이는 문장 사이에 한글토를 추가하여 장소 변화와 진문자의 말을 구분해주고자 한 것이다.

주격조사 외에도 『논어언해』에서는 在陳과 曰 사이에 ‘흐샤’를 넣어 장소와 공자의 말을 구분해주고 있으며, 朝와 與 사이에 ‘애’를 넣어 시점을 구분하고 있다.(표 6) 여기서 ‘朝’에 ‘애’를 추가한 것은 주자가 해당 대목을 설명하며 ‘此君未視朝時也’라는 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趕進翼如也에서 趕進 뒤에 ‘애’를 부기한 것도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비유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屏氣似不息者’에서 屏氣 뒤에 ‘흐야’를 붙여 似不息者와 구분한 것은 기운을 가린 행동과 그 결과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하였다는 부분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16세기 후반 편찬된 『논어언해』는 16세기 초 편간된 『논어대문구결』보다 언행, 장소, 인과 관계 등을 구분하는 토가 더 추가되어 있다.

한편 『논어대문구결』보다 『논어언해』에서 한글토의 건수가 줄어든 부분도 존재한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7] 『논어대문구결』보다 『논어언해』에서 한글토가 감소한 예

논어대문구결	논어언해	편명	비고
曾子 曰吾는 日로 三省吾身 흐노니 爲人謀而不忠乎아 흐 며 與朋友交而不信乎아 흐며 傳不習乎에나리라	曾子 曰吾 日 三省吾身 흐 노니 爲人謀而不忠乎아 與朋 友交而不信乎아 傳不習乎에 나리라	學而	조사 ‘-로’ 삭제
有所不行흐니 知和而和 오 不以禮로 節之면 亦不可行也 나라	有所不行흐니 知和而和 오 不以禮節之면 亦不可行也 나라	學而	조사 ‘-로’ 삭제
子曰君子는 不以言으로 舉人 흐며 不以人으로 廢言이니라	子 曰君子는 不以言舉人 흐 며 不以人廢言이니라	衛靈公	
子 見齊衰者와 晃衣裳者와 與瞽者흐시고 見之예 雖少 나 必作흐시며 過之예 必趨 러시다	子 見齊衰者와 晃衣裳者와 與瞽者흐시고 見之예 雖少 나 必作흐시며 過之必趨 러 시다	子罕	조사 ‘-애’ 삭제

子曰禮云禮云인들 玉帛 <u>을</u> 云 乎哉아 樂云樂云인들 鐙鼓 <u>을</u> 云乎哉아	子 曰禮云禮云이나 玉帛云 乎哉아 樂云樂云이나 鐙鼓云 乎哉아	陽貨	목적격조사 삭제
子曰孰謂微生高를 直고 或이 乞醯焉이어늘 乞諸其隣而與 之온여	子 曰孰謂微生高直고 或이 乞醯焉이어늘 乞諸其隣而與 之온여	公冶長	
陳子禽이 謂子貢曰子 爲恭 也 언녕 仲尼 豈賢於子乎 리오	陳子禽이 謂子貢曰子爲恭也 언녕 仲尼 豈賢於子乎 리오	子張	주격조사 삭제
朋友 死호야 無所歸어든 曰 於我 <u>의</u> 殯이라 亟더시다	朋友 死호야 無所歸어든 曰 於我 殯이라 亟더시다	鄉黨	처격조사 삭제
哀公이 問於有若曰年饑 <u>호야</u> 用不足호니 如之何오	哀公이 問於有若曰年饑用不 足호니 如之何오	顏淵	그 외 삭제의 예시
子夏 聞之 <u>호고</u> 曰噫라 言游 過矣로다君子之道는 孰先 傳焉이며 孰後倦焉이리오 譬 諸草木건댄 區以別矣니君子 之道는 焉可諷也 리오 有始 有卒者는 其惟聖人乎 신녀	子夏 聞之曰噫라 言游 過 矣로다君子之道 孰先傳焉 이며 孚後倦焉이리오 譬諸草 木건댄 區以別矣니君子之道 焉可諷也 리오 有始有卒 者는 其惟聖人乎 신녀	子張	

표 7을 살펴보면 조사 ‘-(으)로’나 ‘-에’ 등이 삭제된 경우와 여타 문장의 기능을 표기한 조사들을 삭제한 모습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曾子가 날마다 세 번 자신을 돌아본다는 ‘吾日三省吾身’에서 『논어대문구결』은 ‘日’과 ‘三省吾身’ 사이에 ‘로’를 부기하였다. 『논어언해』에서는 大文의 한글토로 나타나는 ‘로’는 삭제하였지만, 언해는 ‘·날로 :세 가·지로 내 ·몸·을 술·피노·니’로 하여 ‘로’를 살린 모습을 볼 수 있다.(표 7)

한글토에서는 ‘-로’를 제거하였지만, 언해문에서는 그대로 반영하였으므로, 문장의 해석을 달리하는 측면으로서 한글토 ‘-로’가 삭제되었다고 보기 는 어렵다. 만약 문장의 해석을 달리하기 위해 ‘-로’를 삭제한 것이라면 언해문에서도 해당 부분이 수정 내지 삭제되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언해문에서는 존재하지만, 대문의 한글토에서는 삭제한 것을 보아 ‘-로’의 제거는

『논어언해』의 편찬을 맡았던 인물이 기존에 있던 ‘-로’를 대문에서 그대로 둔다면 문장이 지나치게 세분화된다고 판단하고 삭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不以禮節之나 不以言舉人, 不以人廢言에서도 『논어대문구결』은 ‘以’를 살려 ‘로’를 현토하였는데, 『논어언해』에서는 현토는 삭제하고 언해문에서는 ‘禮·례로·띠 節·절·티 아·니·면’, ‘言언·으로·띠 人신·을 舉:거·티 아·니·흐·며’ 등과 같이 ‘-로띠’를 반영해두었다.(표 7) 이는 모두 대문에 ‘以’가 있기에 굳이 ‘로’를 남겨 문장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지 않고자 조치한 것이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목적격조사를 삭제한 사례를 살펴보자. 해당 문구를 살펴보면 『논어대문구결』에서는 문장 내 목적격조사를 표현하기 위해 한글토를 세밀히 기재한 부분이 확인된다. 『논어언해』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모두 삭제하였다. 예를 들어 『논어대문구결』의 ‘子曰禮云禮云인들 玉帛을 云乎哉아 樂云樂云인들 鐙鼓를 云乎哉아’ 구절에서 ‘을’과 ‘를’을 『논어언해』는 모두 삭제하였다. 언해문에는 ‘玉·옥帛·匹·을 널으·랴’, ‘鍾종鼓·고를 널으·랴’와 같이 목적격조사를 유지하였지만, 본문에서는 玉帛/鐘鼓과 云을 굳이 현토하여 나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주격과 치격이 삭제된 사례도 존재한다. 『논어대문구결』에서는 「자장」 편의 ‘陳子禽이 謂子貢曰子 | 爲恭也 | 언녕 仲尼 | 豈賢於子乎 | 리오’라는 문장에 현토를 하며 진자금이 자공을 일컬어 ‘子’라고 한 표현에 주격조사 ‘|’를 달아두었는데, 『논어언해』에서는 언해문에서는 주격조사를 유지하였으나, 대문의 한글토에서는 삭제하였다. 이외에도 『논어대문구결』은 ‘朋友 | 死호야 無所歸어든 曰於我의 | 壯이라 乎더시다’라는 대목에서 ‘나에게’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치격조사 ‘의’를 대문에 부기한 반면, 『논어언해』는 언해문에서 ‘내게’라는 표현을 살려 치격조사를 유지시키되, 대문에서는 ‘我’와 ‘adden’을 합쳤다. 이러한 현상들은 대개 문장이 지나치게 세밀하게 나누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현상을 주격조사 초기 현상과 함께 보면, 선조대 이루어진 언해

작업은 문장에서 주격조사 표기를 드러내는 것에 치중한 반면, 다소 과하게 나눈 현토는 합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논어언해』는 『논어대문구결』보다 주격조사의 표기를 드러내는 데에 힘을 기울였으며, 『논어대문구결』은 『논어언해』보다 문장을 세밀하게 나누는 것에 힘을 기울인 것이다. 이외에도 『논어대문구결』과 『논어언해』를 대조하면 동일한 한글토이나 표기 차원에서 수정된 부분이 존재한다.

[표 8] 『논어대문구결』의 초성 ‘o’이 변화한 예

논어대문구결	논어언해	편명	비고
子貢曰貧而無詔호며 富而無驕호된 何如 <u>흔니잇고</u> 子 曰 可也 나 未若貧而樂호며 富而好禮者也 니라	子貢이 曰 貧而無詔호며 富而無驕호된 何如 <u>흔니잇고</u> 子 曰 可也 나 未若貧而樂호며 富而好禮者也 니라	學而 第一	
子夏 問曰 巧笑倩兮며 美目 盼兮에 素以爲絢兮라 <u>흔니</u> 何 謂也 <u>잇고</u>	子夏 問曰 巧笑倩兮며 美目 盼兮어 素以爲絢兮라 <u>흔니</u> 何 謂也 <u>잇고</u>	八佾 第三	
樊遲從遊於舞雩之下 러니 曰敢問崇德修慝辨惑 <u>흔노이</u> 다	樊遲 從遊於舞雩之下 러 니 曰敢問崇德修慝辨惑 <u>흔노이</u> 다	顏淵 第十二	초성 ‘o’이 ‘o’으로 변화한 예
孔子 與之坐而問焉曰夫子 는 何爲오 對曰夫子 欲寡其 過而未能也 <u>나이다</u> 使者 出커늘子曰使乎使乎 여	孔子 與之坐而問焉曰夫子 는 何爲오 對曰夫子 欲寡其 過而未能也 <u>나이다</u> 使者 出커늘 子 曰使乎使乎 여	憲問 第十四	
冉有季路 見於孔子曰季氏 將有事於顚臾 <u>로소이다</u>	冉有季路 見於孔子曰季氏 將有事於顚臾 <u>로소이다</u>	季氏 第十六	
子游 對曰昔者애 儂也 聞 諸夫子호니 曰君子 學道則 愛人이오 小人이 學道則易使 也 <u>라 호이다</u>	子游 對曰昔者애 儂也 聞 諸夫子호니 曰君子 學道則 愛人이오 小人이 學道則易使 也 <u>라 호이다</u>	陽貨 第十七	
哀公이 問社於宰我 <u>흔대</u> 宰我 對曰 夏后氏는 以松이오	哀公이 問社於宰我 <u>흔신대</u> 宰 我 對曰 夏后氏는 以松이오	八佾 第三	초성 ‘o’이 선행음절

殷人은 以栢이오 周人은 以栗 이니 曰使民戰栗이니이다	殷人은 以栢이오 周人은 以栗 이니 曰使民戰栗이닝이다		
子曰 吾未見剛者케라 或이 對 曰申根이니이다 子曰根也는 慾이어니 焉得剛이리오	子 曰 吾未見剛者케라 或이 對曰申根이닝이다 子 曰根 也는 慾이어니 焉得剛이리오	公治 長第五	
顏淵曰願無伐善 ھ며 無施勞 <u>흐노이다</u>	顏淵이 曰願無伐善 ھ며 無施 勞 ھ농이다	公治 長第五	종성에 반영된 예
子貢曰如有博施於民而能濟 衆호던 何如 ھ니잇고 可謂仁 乎 잇가 子曰何事於仁이리 오 必也聖乎 데 堯舜도 其猶 病諸시니라	子貢이 曰如有博施於民而能濟 衆흔던 何如 ھ닝잇고 可謂仁 乎 잇가 子 曰何事於仁 이리오 必也聖乎 데 堯舜도 其猶病諸 시니라	雍也 第六	
子貢이 問曰賜也는 何如 ھ니 잇고 子曰女는 器也 나라 曰 何器也 잇고 曰瑚璉也 니 라	子貢이 問曰賜也는 何如 ھ닝 잇고 子 曰女는 器也 나라 曰何器也 잇고 曰瑚璉也 니 라	公治 長第五	같은 구절 내 두 현상이 함께 나오는 예

표 8은 『논어대문구결』의 초성에 ‘ㅎ’이 사용된 한글토가 『논어언해』에서 ‘o’이나 선행음절의 종성으로 빠져, 초성에 ‘ㅎ’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잇가’, ‘-ھ니잇고’ 등에서 사용된 초성 ‘ㅎ’은 『논어언해』에서 대부분 ‘o’으로 변화하였는데, 일부는 선행음절의 종성에 ‘ㅎ’이 옮겨진 경우가 존재한다. ‘-ھ니잇고’는 경우에 따라 ‘ㅎ’을 ‘o’으로 바꾸거나 선행음절의 종성에 유지시키기도 하였는데,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장경희(2012)²⁸⁾에서는 한국어의 평서형 종결어미를 다루며, 통시적 변화를 정리·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니이다’는 아주 높임의 표현이며, ‘-닝다’는 ‘-니이다’보다는 살짝 낮은 단계의 높임 표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논어대문구결』에서는 아주 높임의 대상인 것이, 『논어언해』에서 다소 높이는 대상으로 인식되었다고 이해해도 될까?

28) 장윤희, 「국어 종결어미의 통시적 변화와 쟁점」, 『국어사연구』 14, 2012.

현재로서는 聽者가 아주 높게 대할 대상에서 다소 높게 대할 대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예가 존재한다. 그 예로는 위 표에서 제시한 「八佾」과 「公治長」의 예문을 들 수 있다. 「팔일」편에서 인용한 예시는 당시 군주인 哀公이 宰我와 대화하는 대목인데, 『논어대문구결』에서는 재아가 애공에게 대답하며 아주 높임의 평서형 종결어미인 '-이니이다'를 사용한 반면, 『논어언해』에서는 다소 높이는 표현인 '-이닝이다'를 사용하였다.(표 8)

「공야장」편의 예시 중 2번째로 제시한 예문은 顏淵이 공자에게 자신의 포부를 말하는 대목이다. 『논어대문구결』에서는 안연이 스승인 공자에게 아주 높임의 표현인 '-흐노이다'를 사용하였는데, 『논어언해』에서는 이보다 낮은 높임의 표현인 '-흐농이다'를 사용하였다.(표 8) 만약 '-이다'에서 '-으'로의 변화를 높임의 단계가 낮아진 것으로 인지한다면, 재아는 군주에게 다소 낮은 높임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며, 안연은 스승에게 다소 낮은 높임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특히 안연이 공자에게 자신의 포부를 말하는 대목은 청자가 공자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단순히 높임의 표현을 낮추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현상을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도록 한다.

[표 9] ‘•’가 ‘—’로 수정된 예

논어대문구결	논어언해	편명	비고
子曰父在예 觀其志乎며 父沒 애 觀其行이나 三年을 無改於 父之道 라사 可謂孝矣니라	子 曰父在예 觀其志오父沒 에觀其行이나 三年을 無改於 父之道 라사 可謂孝矣니라	學而	조사 ‘을/를’이 ‘-을/를’로 수정된 예
子曰 殷因於夏禮乎니 所損益 을 可知也 며 周因於殷禮 니 所損益을 可知也 니 其或 繼周者 면 雖百世라도 可知 也 니라	子 曰 殷因於夏禮乎니 所損 益을 可知也 며 周因於殷禮 乎니 所損益을 可知也 니 其 或繼周者 면 雖百世라도 可 知也 니라	爲政	
子張이 問十世를 可知也 잇	子張이 問十世를 可知也 잇	爲政	

가	가		
子曰 夏禮를 吾能言之나 杞不足徵也 며 殷禮를 吾能言之나 宋不足徵也는 文獻이不足故也 니 足則吾能徵之矣로리라	子 曰 夏禮를 吾能言之나 杞不足徵也 며 殷禮를 吾能言之나 宋不足徵也는 文獻이不足故也 니 足則吾能徵之矣로리라	八佾	
子曰君子는 坦蕩蕩이오 小人은 長戚戚이니라	子 曰君子는 坦蕩蕩이오 小人은 長戚戚이니라	述而	조사 ‘은’이 ‘은’으로 수정된 예
放鄭聲 허며 遠佞人이니 鄭聲은 淫하고 佞人은 殆니라	放鄭聲 허며 遠佞人이니 鄭聲은 淫하고 佞人은 殆니라	衛靈公	
子曰大哉라 堯之爲君也 여 巍巍乎唯天이 爲大어시늘 唯堯 則之호시니 蕩蕩乎民無能名焉이로다	子 曰大哉라 堯之爲君也 여 巍巍乎唯天이 爲大어시늘 唯堯 則之호시니 蕩蕩乎民無能名焉이로다	泰伯	
子 疾病이어시늘 子路 使門人으로 爲臣이러니	子 疾病이어시늘 子路 使門人으로 爲臣이러니	子罕	조사 ‘늘’이 ‘늘’로 수정된 예
顏淵이 死커늘 顏路 請予之車호야 以爲之椁호대	顏淵이 死커늘 顏路 請予之車호야 以爲之椁호대	先進	
問管仲호대 曰人也 奕伯氏駢邑三百호야늘 飯疏食沒齒호되 無怨言호니라	問管仲호대 曰人也 奕伯氏駢邑三百호야늘 飯疏食沒齒호되 無怨言호니라	憲問	

표 9를 살펴보면 『논어대문구결』에서는 ‘·’가 사용된 목적격조사 ‘을/를’과 보조사 ‘은’, 연결어미 ‘-늘’의 사용이 활발하다. 반면, 『논어언해』에서는 ‘을/를’과 ‘은’, ‘늘’이 모두 ‘을/를’, ‘은’, ‘늘’로 수정되었다. 이는 16세기라는 시기로 보아 ‘·’의 1단계 음가 소실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는 16세기에 비어두음절에서 ‘·’가 ‘一’로, 18세기에는 어두음절의 ‘·’가 ‘卜’로 변화되었는데²⁹⁾, 16세기 초 편간된 『논어대문구결』의 한글토에 사용된 ‘·’가 16세기 후반 편간된 『논어언해』에서는 ‘一’로 변화한 것이며, 한글토

29) ‘·’의 표기 변천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근래의 연구로는 우형식, 「문자의 보수성과 아래아(·) 표기의 변천」, 『한국어문화교육』 15-2, 2022가 있다.

는 단어 등의 말미에 추가되는 것으로 어두의 성질을 지니지 않은 점을 보아 본 연구에서 지적한 부분은 16세기 ‘·’의 1단계 음가 소실로 인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현상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논어언해』『옹야』에서 ‘子」 謂仲弓曰 犀牛之子」 驛且角이면 雖欲勿用이나 山川은 其舍諸 | 아’나, ‘운’의 상보적 관계인 ‘는’은 형태를 유지하는 등 ‘·’가 ‘一’로 변화하지 않은 사례도 존재한다.(표 10) 이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가 필요하다.

[표 10] ‘·’가 유지된 예

논어대문구결	논어언해	편명
曰今之從政者는 何如乎니잇고 子曰 噫라 斗筲之人을 何足算也 리오	曰今之從政者는 何如乎니잇고 子 曰噫라 斗筲之人을 何足算也 리오	子路
孔子 與之坐而問焉曰夫子는 何爲 오 對曰夫子 欲寡其過而未能也 니이다 使者 出커늘子曰使乎使乎 여	孔子 與之坐而問焉曰夫子는 何爲 오 對曰夫子 欲寡其過而未能也 니이다 使者 出커늘子 曰使乎使 乎 여	憲問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논어대문구결』과 『논어언해』의 한글토를 대조하면 『논어언해』의 한글토는 『논어대문구결』에 기초하되 주격조사 ‘나/이’가 추가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문장은 합치거나, 음운 현상에 영향을 받아 ‘·’가 ‘一’로 변화하는 등의 모습이 보인다. 이외에도 『논어대문구결』의 한글토가 다른 한글토로 교체된 경우도 존재한다.

[표 11] 한글토가 다른 토로 교체된 예

논어대문구결	논어언해	편명
道之以德 <u>혹며</u> 齋之以禮면 有恥且格이 니라	道之以德 <u>하고</u> 齋之以禮면 有恥且格이 니라	爲政
人焉瘦哉 <u>며</u> 人焉瘦哉리오	人焉瘦哉리오 人焉瘦哉리오	爲政

子曰赤之適齊也애 乘肥馬흐며 衣輕裘 호니 吾는 聞之也호니 爵子는 周急이 <u>언명</u> 不繼富 라 호라	子 曰赤之適齊也애 乘肥馬흐며 衣輕裘 호니 吾는 聞之也호니 爵子는 周急 이오 不繼富 라 호라	雍也
原思 爲之宰라 與之粟九百호야시늘 辭호대	原思 爲之宰러니 與之粟九百이어시 늘 辭호대	雍也
孔子 曰才難이 不其然乎아 唐虞之際 吳 於斯爲盛호니 有婦人焉이언명 九 人而已나라	孔子 曰才難이 不其然乎아 唐虞之際 於斯爲盛호나 有婦人焉이라 九人而 已나라	泰伯
所謂大臣者는 以道事君호다가 不可則 止나라	所謂大臣者는 以道事君호다가 不可則 止호느니	先進

표 11에서 보이듯 『논어대문구결』과 『논어언해』는 혼토가 일부 차이난다. 예시를 순서대로 살펴보자. 『논어대문구결』「위정」의 ‘道之以德호며 齊之以禮면 有恥且格이니라’라는 구절에 대해 『논어언해』는 ‘호며’를 ‘하고’로 수정하였다. 국어사전에서는 ‘-며’의 첫 번째 기능을 두 가지 이상의 동작 상태 등을 나열할 때로 제시하였으며, ‘-고’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나열하는 기능을 첫 번째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로 보아 『논어대문구결』은 나열에 초점을 둔 반면, 『논어언해』는 德으로 이끌고 禮로 규제한다는 두 사안을 전제조건으로 뒤에 ‘有恥且格’의 결과가 이를 것이라는 점을 염두 해두어 덕으로 이끄는 것과 예로 규제한다는 것을 대등한 입지로 설정하였기에 ‘-고’로 수정하였으리라 여겨진다. 『논어대문구결』‘人焉廩哉며 人焉廩哉 리오’ 구절에 사용된 ‘-며’를 『논어언해』에서 뒷구절의 한글토와 같은 ‘리오’로 수정하였다.(표 11) 해당 구절은 ‘子曰視其所以호며 觀其所由호며 察其所安이면’ 다음에 등장하는 구절인데, 주자의 주석에서 해당 구절을 설명하며 ‘거듭 되풀이하여 깊이 밝혔다(重言以深明之)’고 하였다. 『논어언해』에서는 이에 따라 수정하였으리라 여겨진다.

또 『논어대문구결』「옹아」‘子曰赤之適齊也애 乘肥馬호며 衣輕裘호니
吾는 聞之也호니 爵子는 周急이언명 不繼富 | 라 호라’에서 ‘周急이언명’을
『논어언해』에서는 ‘周急이오’로 바꾸었다.(표 11) 해당 구절은 공자가 군자

는 어려운 이를 돋지, 부유한 이를 경제적으로 돋지는 않는다고 한 부분이다. 『논어대문구결』에서 사용한 '-이언녕'은 중세국어에서 궁정문과 부정문의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있다. 그러나 앞의 표에서 제시한 「태백」 「孔子」 曰才難이 不其然乎아 唐虞之際 옷 於斯爲盛 호니 有婦人焉 이 언녕 九人而已나라' 구절을 보면 10명의 신하 중 부인이 있어 실제 신하는 9명 뿐이라는 대목처럼 꼭 궁정문과 부정문 사이에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논어대문구결』에서는 두 구절에 대해 '이언녕'을 넣어 강한 어감을 넣었으나, 『논어언해』에서는 '-이오', '-이라'와 같이 비교적 어감이 약간 한글토로 교체하였다. 이는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모두 공자가 말하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성인인 공자의 말에 어감이 강한 조사를 넣기보다는 문장을 무난하게 연결할만한 '이오'나 '이라'로 교체하였으리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논어대문구결』 「선진」에서 '所謂大臣者는 以道事君 흥다가 不可則止 나라'의 '나라'를 『논어언해』에서 '호느니'로 수정한 부분이 있다. (표 11) 『논어대문구결』에서는 주자가 여기서 구절을 끊었기에, '나라'를 사용하여 문장을 끊었다. 하지만 해당 문장은 季子然이 공자에게 제자인 仲由와 冉求는 大臣이라 할만한지 묻자, 대신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중유와 염구에 대해 평을 하는 대목에 속한 것이다. 그렇기에 『논어언해』는 연결어미로 수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論語大文口訣』과 『論語諺解』를 중심으로 16세기 『논어』의 懸
吐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유학의 가장 핵심되는 인물인 공자의 언행을
담은 『논어』는 한국에서 늦어도 삼국시대부터 읽혀진 문헌으로, 조선시대에
는 주자학에 의거하여 『논어』 등의 유학경전을 이해해왔다. 한국에서는 일찍
부터 경전의 이해를 위해 구절이나 이두 등을 사용하여 經文의 구절을 끊고,
구절 간의 상호관계에 맞춰 적절한 토를 부기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논어대문구결』은 잘 알려지지 않은 문헌이나, 선조대
편간된 『논어언해』보다 앞선 시기 한글을 사용하여 『논어』의 대문에 현토를
한 문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어대문구결』과 『논어언해』의 서지사항
을 살펴본 뒤, 내용적 측면에서 한글토를 대조하여 16세기 조선에서 사용한
『논어』의 현토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현재 널리 알려진 『논어언해』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조선전기 『논어』를 이해하기 위한 구절 및 언해 작업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록을 비롯하여 『慵齋叢
話』, 『太虛亭集』, 『五洲衍文長箋散稿』, 『眉巖先生集』, 『栗谷全書』 등 여러
문헌에서 관련 기록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한글 창제 이후 크게
4차례 『논어』의 현토 작업이 있었으며, 『논어언해』가 마지막에 시행된 현토
작업의 결과물임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논어대문구결』과 『논어언해』의 서지사항을 살펴보았다. 『논
어대문구결』은 간행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나, 인출에 사용된 올해자의 마모
도와 한글토 초성에 사용된 ‘ㅇ’으로 미루어 16세기 초 간행되었으리라 보았
다. 『논어언해』는 초간본인 經書字本을 대조군으로 선정하고, 도산서원, 임
고서원, 고려대학교 만송문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조정 종가에 소장되어
있음을 정리하였다.

4장에서는 『논어대문구결』과 『논어언해』의 한글토를 중심으로 대조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주자주에 의거하여 구절이 분리된 861개의 구절은 『논어대문구결』의 한글토를 골자로 일부 수정한 부분이 다수임을 확인하였다. 조금이라도 수정 내지 가감된 구절은 861건 중 644건(74.80%)이었으며, 수정 내지 가감된 구절 644건 중 한글토가 증가한 431개 구절 중 대다수인 422건은 ‘子曰’을 ‘子 | 曰’로 바꾸는 등 주격조사 추가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한글토가 감소한 구절은 『논어대문구결』에서 지나치게 나누었기에 『논어언해』에서 적절히 생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논어대문구결』에는 있지만 『논어언해』에서 생략된 한글토는 『논어언해』의 언해문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논어대문구결』에서 ‘·’가 사용된 ‘은’, ‘을/를’, ‘-늘’ 등이 ‘은’, ‘을/를’, ‘-늘’ 등 모음 ‘一’를 가진 조사로 변경된 모습을 확인하였다. 해당 부분은 16세기 ‘·’의 1단계 음가 소실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에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한글토가 다른 토로 교체된 예시를 확인하여 주자의 주석이나 문장의 앞뒤 상관관계에 따라 『논어언해』에서 한글토를 교체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이상 살펴본 바 『논어대문구결』의 한글토는 『논어언해』의 한글토와 상당 부분 일치하나, 주격조사의 추가, 문맥과 주자주에 따른 한글토의 교체, 지나치게 세밀히 쪼개어둔 문장을 다시 결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선조대 경서언해는 다른 여타의 문헌도 참고하였겠지만, 적어도 한글토에서만큼은 『논어언해』와 『논어대문구결』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 두 문헌 간의 밀접한 관련성, 『논어대문구결』의 간행 추정 시기 및 유승조의 생몰년, 선조대 유승조에 대한 평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논어대문구결』은 미암이나 성호가 언급한 유승조의 경문 해석본이라 추정된다. 차후 『논어대문구결』 등 유학과 관계된 관판본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한국 경학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원전

『三國史記』
『元史』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高麗史』
『論語大文口訣』
『論語栗谷先生諺解』
『論語諺解』
『眉巖先生集』

논저

- 안병희, 「中世語의 한글資料에 대한 綜合的인 考察」, 『규장각』 3, 1979, 109-147쪽.
이병혁, 「傳統 漢文 教育 -漢文 懸吐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6, 2000, 9-65쪽.
옥영정, 「17세기 간행 四書諺解에 대한 종합적 연구」, 『서지학연구』 32, 2005, 361-386쪽.
남경란, 「『사서언해』의 국어학적 고찰」, 『민족문화논총』 34, 2006, 159-193쪽.
여찬영, 「中庸諺解」의 번역언어학적 분석, 『언어과학연구』 38, 2006, 1-22쪽.
안현주, 「朝鮮時代 〈四書〉의 板本 研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李成市·尹龍九·金慶浩, 「平壤 貞柏洞364號墳出土 竹簡 『論語』에 대하여」, 『목간과문자』 4, 2009, 127-166쪽.
유영옥, 「校正廳本 四書諺解의 經學的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구자훈, 「朝鮮朝의 藏書印·藏書家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장윤희, 「국어 종결어미의 통시적 변화와 쟁점」, 『국어사연구』 14, 2012, 63-99쪽.
이영경, 「사서삼경(四書三經)의 언해 양상과 표기상의 특징」, 『우리말글』 57,

2013, 29-53쪽.

신상후, 「四書의 經文 및 註文 해석에서 懸吐 논란 사례에 관한 고찰」, 『한국고전연구』 30, 2015, 39-63쪽.

박종배, 「조선 전기의 유교 경서 구결과 그 교육사적 의의」, 『교육사학연구』 29-2, 2019, 57-89쪽.

이규필, 「栗谷四書諺解와 校正廳四書諺解 현토의 비교 연구 -주로 『論語諺解』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61, 2019, 5-34쪽.

우형식, 「문자의 보수성과 아래아(·) 표기의 변천」, 『한국어문화교육』 15-2, 2022, 48-74쪽.

신정엽, 「목판 改刊의 의미와 改刊本의 형태서지적 분석」, 『서지학연구』 99, 2024, 109-135쪽.

사이트

고려대학교 도서관(<https://library.korea.ac.kr/>).

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국가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main/?v=1743251146300>).

한국국학진흥원(<https://www.koreastudy.or.kr/pub/pubMain.do>).

Abstract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ANALECTS'
HYUNTO(懸吐) IN JOSEON IN THE 16TH CENTURY -
FOCUSING ON THE CONTRAST BETWEEN
NONEODAEMUNGUGYEOL AND *NONEOEONHAE*

PARK CHEOLMIN (PARK, CHEOL MIN)

This article compares the Hangul-to(A device that adds a Hangul Helpful words at the end to help understand the sentence) of *Noneodaemungugyeol*(語大文口訣)¹, which is believed to have been published in the early 16th century, and *Noneoeonhae*(語解), which was published in the late 16th century, let's look at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from the perspective of classical Confucian history. When comparing the Hangul-to, it is believed that the Hangul-to of the *Noneoeonhae* was based on the *Noneodaemungugyeol*, but reflected changes such as the addition of the nominative case, unification of subdivided sentences, and replacements that took into account the relationship with the preceding and following sentences and zhū xi's Notess. This change is also linked to the sound change of · (Old Hangul letters used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this study, considering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Hangul-to of *Noneodaemungugyeol* and the Hangul-to of the *Noneoeonhae*, and the estimated date of publication, it was concluded that the *Noneodaemungugyeol* is likely a by Yu Sungjo(柳崇祖, 1452-1512).

16세기 조선의 『論語』 懸註 변화와 특징

Key Words : Confucianism, *Analects'*, Yu Sungjo(柳崇祖), Korean translation, Confucian classics history.

부록. 『論語大文口訣』과 『論語諺解』의 본문 대조 예

순번	논어대문구결	논어언해	편명
1	子曰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子 <u>1</u> 曰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學而
2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學而
3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아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아	學而
4	有子 <u>1</u> 曰其爲人也 <u>1</u> 孝弟오 而好犯上者 <u>1</u> 鮮矣니 不好犯上이오 而好作亂者 <u>1</u> 未之有也 <u>1</u> 니라	有子 <u>1</u> 曰其爲人也 <u>1</u> 孝弟오 而好犯上者 <u>1</u> 鮮矣니 不好犯上이오 而好作亂者 <u>1</u> 未之有也 <u>1</u> 니라	學而
5	君子는 務本이니 本立而道生 <u>1</u> 니 孝弟也者는 其爲仁之本與 <u>1</u> 더니	君子는 勿本이니 本立而道生 <u>1</u> 니 孝弟也者는 其爲仁之本與 <u>1</u> 더니	學而
6	子曰巧言令色이 鮮矣仁이니라	子 <u>1</u> 曰巧言令色이 鮮矣仁이니라	學而
7	曾子 <u>1</u> 曰吾는 日로 三省吾身 <u>1</u> 노니 爲人謀而不忠乎아 <u>1</u> 與朋友交而不信乎아 <u>1</u> 傳不習乎애니라	曾子 <u>1</u> 曰吾 <u>1</u> 日三省吾身 <u>1</u> 노니 爲人謀而不忠乎아 與朋友交而不信乎아 傳不習乎애니라	學而
8	子曰道千乘之國호되 敬事而信 <u>1</u> 約 節用而愛人 <u>1</u> 며 使民以時니라	子 <u>1</u> 曰道千乘之國호되 敬事而信 <u>1</u> 約 節用而愛人 <u>1</u> 며 使民以時니라	學而
9	子曰弟子 <u>1</u> 入則孝 <u>1</u> 고 出則弟 <u>1</u> 하며 謹而信 <u>1</u> 며 汎愛衆호되 而親仁이니 行有餘力이어든 則以學文이니라	子 <u>1</u> 曰弟子 <u>1</u> 入則孝 <u>1</u> 고 出則弟 <u>1</u> 하며 謹而信 <u>1</u> 며 汎愛衆호되 而親仁이니 行有餘力이어든 則以學文이니라	學而
10	子夏 <u>1</u> 曰 賢賢호되 易色 <u>1</u> 하며 事父母호되 能竭其力 <u>1</u> 하며 事君호되 能致其身 <u>1</u> 하며 與朋友交호되 言而有信이면 雖曰未學이라도 吾必謂之學矣라 호리라	子夏 <u>1</u> 曰 賢賢호되 易色 <u>1</u> 하며 事父母호되 能竭其力 <u>1</u> 하며 事君호되 能致其身 <u>1</u> 하며 與朋友交호되 言而有信이면 雖曰未學이라도 吾必謂之學矣라 호리라	學而
11	子曰君子 <u>1</u> 不重則不威니 學則不固 <u>1</u> 니라	子 <u>1</u> 曰君子 <u>1</u> 不重則不威니 學則不固 <u>1</u> 니라	學而
12	主忠信 <u>1</u> 하며	主忠信 <u>1</u> 하며	學而
13	無友不如己者 <u>1</u> 오	無友不如己者 <u>1</u> 오	學而
14	過則勿憚改니라	過則勿憚改니라	學而
15	曾子 <u>1</u> 曰慎終追遠이면 民德이 歸厚矣리라	曾子 <u>1</u> 曰慎終追遠이면 民德이 歸厚矣리라	學而

16	子禽이] 問於子貢曰 夫子 至於是邦也 헤샤 必聞其政 <u>호시리니</u> 求之與아 抑與之與아	子禽이] 問於子貢曰 夫子 至於是邦也 헤샤 必聞其政 헤시느니 求之與아 抑與之與아	學而
17	子貢曰 夫子는 溫良恭儉讓以得之시니 夫子之求之也는 其諸異乎人之求之與 데	子貢이] 曰 夫子는 溫良恭儉讓以得之시니 夫子之求之也는 其諸異乎人之求之與 데	學而
18	子曰父在예 觀其志 <u>호며</u> 父沒에 觀其行이나 三年 <u>을</u> 無改於父之道 라사 可謂孝矣니라	子] 曰父在예 觀其志오 父沒에 觀其行이나 三年을 無改於父之道 라사 可謂孝矣니라	學而
19	有子 曰禮之用이 和 爲貴 <u>하니</u> 先王之道 斯爲美 <u>라</u> 小大由之니라	有子 曰禮之用이 和 爲貴 <u>하니</u> 先王之道 斯爲美小大由之니라	學而
20	有所不行 <u>하니</u> 知和而和 오 不以禮 <u>로</u> 節之면 亦不可行也 니라	有所不行 <u>하니</u> 知和而和 오 不以禮節之면 亦不可行也 니라	學而
21	有子 曰 信近於義면 言可復也 며 恭近於禮면 遠恥辱也 며 因不失其親이면 亦可宗也 니라	有子 曰 信近於義면 言可復也 며 恭近於禮면 遠恥辱也 며 因不失其親이면 亦可宗也 니라	學而
22	子曰君子 食無求飽 <u>하며</u> 居無求安 <u>하며</u> 敏於事而慎於言이오 就有道而正焉이면 可謂好學也已니라	子] 曰君子 食無求飽 <u>하며</u> 居無求安 <u>하며</u> 敏於事而慎於言이오 就有道而正焉이면 可謂好學也已니라	學而
23	子貢曰貧而無諂 <u>하며</u> 富而無驕 <u>호되</u> 何如 <u>하니잇고</u> 子 曰可也 나 未若貧而樂 <u>하며</u> 富而好禮者也 니라	子貢이] 曰貧而無諂 <u>하며</u> 富而無驕 <u>호되</u> 何如 <u>하니잇고</u> 子 曰可也 나 未若貧而樂 <u>하며</u> 富而好禮者也 니라	學而
24	子貢曰詩云如切如磋 <u>하며</u> 如琢如磨 라 <u>하니</u> 其斯之謂與 데	子貢이] 曰詩云如切如磋 <u>하며</u> 如琢如磨 라 <u>하니</u> 其斯之謂與 데	學而
25	子曰賜也는 始可與言詩已矣로다 告諸往而知來者 은여	子] 曰賜也는 始可與言詩已矣로다 告諸往而知來者 은여	學而
26	子曰不患人之不已知오 患不知人也 니라	子] 曰不患人之不已知오 患不知人也 니라	學而
27	子曰爲政以德이 譬如北辰이 居其所 어든 而衆星이 共之니라	子] 曰爲政以德이 譬如北辰이 居其所 어든 而衆星이 共之니라	爲政
28	子曰詩三百에 一言以蔽之 <u>하니</u> 曰 思無邪 니라	子] 曰詩三百에 一言以蔽之 <u>하니</u> 曰思無邪 니라	爲政

29	子曰道之以政 ᄋ고 齊之以刑이면 民免而無恥니라	子 <u>1</u> 曰道之以政 ᄋ고 齊之以刑이 면 民免而無恥니라	爲政
30	道之以德 <u>하며</u> 齊之以禮면 有恥且 格이니라	道之以德 ᄋ고 齊之以禮면 有恥且 格이니라	爲政
31	子曰吾 <u>1</u> 十有五而志于學 ᄋ고	子 <u>1</u> 曰吾 <u>1</u> 十有五而志于學 ᄋ고	爲政
32	三十而立 ᄋ고	三十而立 ᄋ고	爲政
33	四十而不惑 ᄋ고	四十而不惑 ᄋ고	爲政
34	五十而知天命 ᄋ고	五十而知天命 ᄋ고	爲政
35	六十而耳順 ᄋ고	六十而耳順 ᄋ고	爲政
36	七十而從心所欲 <u>하야</u> 不踰矩호라	七十而從心所欲 <u>하야</u> 不踰矩호라	爲政
37	孟懿子 <u>1</u> 問孝 <u>흔대</u> 子曰無違니라	孟懿子 <u>1</u> 問孝 <u>흔대</u> 子 <u>1</u> 曰無違니 라	爲政
38	樊遲御 <u>1</u> 러니 子 <u>1</u> 告之曰 孟孫이 問孝於我 <u>1</u> 어늘 我 <u>1</u> 對曰 無違라 호라	樊遲 <u>1</u> 御 <u>1</u> 러니 子 <u>1</u> 告之曰 孟孫 이 問孝於我 <u>1</u> 어늘 我 <u>1</u> 對曰 無違 라 호라	爲政
39	樊遲曰何謂也 <u>1</u> <u>있고</u> 子曰 生事之 以禮 <u>하며</u> 死葬之以禮 <u>하며</u> 祭之以 禮니라	樊遲 <u>1</u> 曰何謂也 <u>1</u> <u>있고</u> 子 <u>1</u> 曰 生事之以禮 <u>하며</u> 死葬之以禮 <u>하며</u> 祭之以禮니라	爲政
40	孟武伯이 問孝 <u>흔대</u> 子曰父母 <u>는</u> 唯 其疾之憂 <u>1</u> 시니라	孟武伯이 問孝 <u>흔대</u> 子 <u>1</u> 曰父母 <u>는</u> 唯其疾之憂 <u>1</u> 시니라	爲政